

## 장애학생의 진학준비 실태 및 진학결정 변인 분석

이 지 경\*

부산대학교 특수교육과 BK 21 플러스+ 연구교수

박 재 국\*\*

부산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

### 《 요 약 》

---

이 연구는 장애 고등학생의 진학준비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진학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찾아내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하여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교육중단연구 조사자료가 사용되었다. 일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89명의 고등학교 3학년 장애학생들의 자료를 선별하여 카이검증과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연구결과를 분석하였다. 학생들은 대부분 학교교육중심으로 대학진학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미래의 원하는 직업을 위하여 대학 진학을 원했고, 진학결정에 가족과 학교 선생님이 가장 많은 도움을 주었다. '사교육', '수업이 해도', '상담을 통한 진학진로지도'가 학생들의 진학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졸업을 앞 둔 장애 학생들과 가족의 진학결정에 도움이 되는 지원 방법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되었다.

---

주제어 : 장애학생, 진학준비 실태, 진학결정, 변인

---

\* 제1저자(jikyunglee@gmail.com)

\*\* 교신저자(pjk006@hanmail.net)

## 1.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정보화의 물결로 현대사회는 하루가 달리 변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은 우리의 삶에서 필수적이다. 요즘은 이러한 교육이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소리가 커지고 있다. 학령기 교육을 마친 장애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확대해 주기 위해 1995년부터 대학특별전형 입학제도가 실시되었다. 이 제도는 학생들에게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접근을 확대해 주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교육과학기술부, 2013). 또한 학생들도 고등교육의 기회와 혜택을 통해 사회적응력을 기르고, 그들만의 전문성과 능력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대학특별전형 입학제도를 중요하게 인식한다(박환보, 양희준, 김기석, 2009). 국가의 정책적인 지원에 힘입어 진행되고 있는 대학특별전형 입학제도는 2013년에 이르러 전국 122개 대학으로 확산되어 실시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3).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학생의 대학진학률은 15.5%로 비장애학생의 대학진학률 70.7%에 비해 여전히 매우 낮다(교육과학기술부, 2013).

장애학생이 진학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지속적인 학업의 꿈을 펼치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건강상의 이유나 이동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김미선, 박중휘, 2013). 또한 지속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을 받을 때 발생하는 재정적인 문제나 부담도 이들에게 있다(최지영, 2009). 장애학생은 비장애학생에 비해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는 데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학교 교육만으로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러한 장애학생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과 같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 연구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김형일, 2012).

한편 시대적 요구와 발맞추며 장애학생의 고등교육으로의 전환을 권장하자는 취지에서 이들이 진학결정을 할 때 영향을 받는 변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장애학생의 ‘성별’, ‘연령’, ‘장애범주’, ‘소속고등학교유형’, ‘학생의 학업수행도’, ‘수업이해도’, ‘상담을 통한 진학진로지도 상담’이 영향변인으로 언급되었다. 김성식(2008)은 그의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남녀 학생들의 진학결정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500여명의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연구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4년제 대학교를 더 선호하고 여학생은 전문대학을 더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 연구에서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고등교육으로의 선택에 더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고, 고등교육으로의 전환에 대한 교사의 진학진로지도도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더 적극적인 관심

을 보인 것으로 나왔다(Powers et al., 2008). 60명의 고등학교 특수학급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반응을 연구한 정운우(2012)의 연구에서도 학생들의 성별과 장애 범주는 고등교육에 대한 진학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430명의 미국국립중단전환교육연구(NLTS2: National Longitudinal Transition Study2) 자료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장애학생의 성별, 연령, 장애범주는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 되었으나(Chiang et al., 2012), 소속고등학교유형(일반계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고등부) 과 대학진학 진로지도상담(Chiang et al., 2012; Halpern et al., 1995; Test et al., 2009) 은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이 고등교육으로의 전환을 더 희망하고 진학률도 실제로 더 높았고, 대학진학 진로지도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 그룹이 상담을 받지 않은 그룹보다 더 높은 교육단계로 진학결정을 하였다(Halpern et al., 1995; Test et al., 2009). 사교육의 여부도 중요한 변인 중 하나였다(김태일, 2005). 수도권 4개 학교 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사교육 여부를 조사하였고, 그 들 중 사교육을 받는 학생이 사교육이 진학결정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소득도 학생의 진학결정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요소로써 이것은 특히 사회적 계층과 관련하여 기존 연구에서 자주 언급되기도 하였다(김성식, 2008; 정운우, 2012; Chiang et al., 2012). 부모의 경제적 수준이 높으면 학생이 고등교육의 기회를 더 많이 누릴 가능성이 컸다(김성식, 2008). 과거에 영향변인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와 더불어 장애학생의 진학과 관련된 문제점들도 부각되었다. 성공적인 대학진학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실제 교육현장에서 교원들 간의 협력과 지원의 형태로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정작 진학을 위한 학업 준비가 제대로 이행되거나 선행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Hitchings, Retish, & Horvath, 2005). 그리고 고등학교 특수학급 담당교사들의 장애에 대한 이해부족과 진학지도상담에 관한 전문지식의 부족으로(서희선, 권현수, 2009; 우정환, 김영걸, 이창섭, 2008)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도 한 연구를 통해 보고된바 있다(정운우, 2012).

과거의 장애학생의 고등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시각 또는 청각장애 학생로 집중되어온 것으로 보이고, 그 관련 연구 주제들은 고등교육정책과 제도(이경준, 2008; 정동영, 2006), 장애학생의 대학진학지원 서비스 실태(정의석, 이해균, 김정현, 2011), 보조공학 서비스(김영걸, 2009), 장애학생의 대학교육 인식(김미선, 박중휘, 2013), 대학교육에 대한 교수의 인식(김동일, 김혜영, 2006; 최민숙, 김성애, 박은혜, 2002), 학습지원과 서비스에 대한 실태(김용욱, 김남진, 우이구, 2008; 우정환, 2009) 등 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국내 문헌은 다소 제한적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장애학생은 진학과 관련하여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고 고등교육기관 진학의 이유에 대해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 4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5권 4호)

지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생의 진학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는 일도 또한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장애학생의 진학준비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학생의 진학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찾아내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첫째, 장애학생의 진학준비에 관한 실태를 살펴보는 것이고 둘째, 장애학생의 진학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학생의 진학 준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영향력이 있는 변인을 살펴본다면 졸업 후 대학 교육기관으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고등교육으로의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의 잠재력을 발굴해 줄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Roberts, 2010) 본 연구는 중요하고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 II. 연구 방법

### 1. 분석자료 출처와 연구표본

이 연구의 분석자료로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교육중단연구(2005-2010)조사자료’가 사용되었다. 국가 수준의 조사자료의 특징은 전국 일반 고등학교에 속해 있는 다양한 학생의 교육 성취를 여러 영역에 걸쳐 측정하였다는 것이다. 한국교육중단연구 조사자료는 학생 564명, 학부모 422명, 교사 120명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 연구에 쓰일 최종 문항과 설문지 영역이 확정되었다. 한국중단연구조사자료는 총 6908명의 학생들의 응답이 포함되어 있고, 학생설문지의 총 96개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와 관련되는 변인들은 과거에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여 추출되었고, 또 이 연구 조사 자료가 제공할 수 있는 특징적인 변인들이 선별되고 추출되었다.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이 연구에 사용된 문항은 모두 16문항이다.

이 연구를 위해 조사자료 중, 학생설문지의 해당항목들이 부분적으로 선별되고 사용되었다. 장애학생들의 진학준비 실태를 위해 설문지 항목들 중에 과목영역별 사교육, 대학 진학의존활동, 대학 진학이유, 대학 진학결정에 도움을 받는 사람(정보), 진학정보 출처에 관한 내용이 추출되었다. 설문지 항목들 중에 학생들의 ‘진학결정’, ‘성별’, ‘연령’, ‘소속고등학교유형’, ‘사교육 경험여부’, ‘수업이해도’, ‘가구소득’, ‘상담을 통한 진학진로지도 여부’, ‘진학진로지도 관련 검사(전공적성 검사) 여부’, ‘전문가 혹은 선배 등으로 부터 진학진로지도 여부’, ‘대학 및 학과 안 내형태의 진학진도 경험유무’에 관한 내용이 본 연구를 위해 추출되었다.

이 연구의 표본은 만 17세에서 20세사이의 일반 고등학교에 포함되어 있는 고

등학교 3학년 경도장애학생이며, 이 연구에서 일반 고등학교는 장애학생을 통합한 학교들로서 특수학교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설문지 항목에서 ‘이 학생은 장애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담임교사가 ‘있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의 사례 중 자신들의 진학결정에 대한 응답을 명확하게 한 289명의 장애 고등학생들의 사례가 분석에 최종적으로 사용되었다.

측정도구의 반응양식은 문항에 따라 선택형과 자유기술형으로 구성하였으며, 선택형 문항의 내용에 대해, ‘전혀 도움이 안된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1로, ‘도움이 안 되는 편이다’, ‘그렇지 않다’,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2로, ‘보통이다’는 3으로, ‘도움이 되는 편이다’, ‘그렇다’, ‘조금 영향을 준다’는 4로, ‘매우 도움이 된다’, ‘매우 그렇다’, ‘많이 영향을 준다’는 5로, ‘받은 적이 없다’는 6으로 기술되었다. 한국교육중단연구 보고서에 기술된 학생질문지 해당 항목의 신뢰도(Cronbach's alpha)는 .83과 .93이다(현 주 외, 2006). 자세한 설문지의 설문영역과 문항내용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설문지의 설문영역과 문항내용

영역	설문지 추출 항목내용	반응양식	Cronbach's Alpha	조사자료 출처
장애 학생들의 진학준비 실태	• 과목영역별 사교육	선택형 (5 리커트 척도)	.83	2010 년도
	• 대학 진학의존활동	선택형 (6 리커트 척도)		2010 년도
	• 대학 진학이유	선택형 (5 리커트 척도)		2010 년도
	• 대학 진학결정에 도움을 받는 사람(정보)	선택형 (5 리커트 척도)		2010 년도
	• 진학정보 출처	선택형 (10 리커트 척도)		2010 년도
장애 학생들의 진학결정 변인	• 성별	선택형 (이분척도)	N/A	2010 년도
	• 연령	자유기술형		N/A
	• 소속고등학교유형	선택형		N/A
	• 사교육 경험여부	선택형 (이분척도)		N/A
	• 수업이해도	선택형 (이분척도)		N/A

\*N/A: Not Applicable(해당사항 없음)

6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5권 4호)

<표 1> 설문지의 설문영역과 문항내용(계속)

영역	설문지 추출 항목내용	반응양식	Cronbach's Alpha	조사자료 출처
장애 학생들의 진학 결정 변인	• 가구소득	자유기술형	.93	2010 년도
	• 진학결정	선택형 (5 리커트 척도)		2010 년도
	• 상담을 통한 진학진로 지도 여부	선택형 (6 리커트 척도)		2010 년도
	• 진학진로지도 관련 검사(전공적성 검사) 여부	선택형 (6 리커트 척도)		2010 년도
	• 전문가 혹은 선배 등으로 부터 진학진로지도 여부	선택형 (6 리커트 척도)		2010 년도
	• 대학 및 학과 안내형태의 진학지도 경험유무	선택형 (6 리커트 척도)		2010 년도

\*N/A: Not Applicable(해당사항 없음)

2. 자료 내용 및 분석 방법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1.0 for windows 프로그램이 사용되었다.

1) 장애학생들의 진학준비 실태분석

이 연구에서 말하는 장애학생의 진학준비 실태의 정의는 과목영역별 사교육, 대학 진학의존활동, 대학 진학이유, 진학결정에 도움을 받는 사람(정보), 진학정보 출처이다. 문항과 반응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백분율은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 산출된 평균을 검토 한 후 각 항목의 순위가 결정되었다.

2) 장애학생의 진학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분석

이 연구에서 말하는 장애학생의 진학결정 변인의 정의는 성별, 연령, 소속고등학교유형, 사교육경험여부, 수업이해도, 가구소득, 상담을 통한 진학진로지도여부, 진학진로지도 관련검사(전공적성검사) 여부, 전문가 혹은 선배 등으로부터 진학진로지도 여부, 대학 및 학과 안내형태의 진학지도 경험유무이다. 카이검증(Chi-Square

Test)과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우선 종속변인과 독립변인간의 유의한 차이를 카이검증을 통해 검정한 후,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검증된 독립변인들만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넣어 학생들의 진학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찾아내었다. 본 연구의 종속변인과 독립변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아래와 같다.

(1) **종속변인:** 종속변인은 고등학교 3학년 장애학생의 진학결정이다. 학생들은 자신이 졸업 후 어느 단계의 고등교육까지 도전하기를 원하는 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하였다. 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 2-3년 전문대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석·박사)졸업과 기타를 선택할 수 있었으며 학생들의 반응상태와 연구의 목적을 고려하여 두 가지 범주형 종속변인이 형성되었다(0 = 고등학교과정 졸업, 1 = 대학 교육과정 이상 졸업).

(2) **독립변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설정된 본 연구의 변인은 ‘성별’, ‘연령’, ‘소속고등학교유형’, ‘사교육 경험여부’, ‘수업이해도’, ‘가구소득’, ‘상담을 통한 진학진로지도 여부’, ‘진학진로지도 관련검사(전공적성 검사) 여부’, ‘전문가 혹은 선배 등으로 부터 진학진로지도 여부’, ‘대학 및 학과 안내형태의 진학지도 경험유무’ 로 총 10개의 변인이 선택되었다.

변인과 측정에 대한 더 구체적인 정보는 아래 <표 2>에 나타나 있다.

<표 2> 변인과 측정에 관한 정보

변인		측정	사례수	%	소계 인원수(%)	계 (%)	
종속 변인	장애 고등학생 의 진학결정	0 = 고등학교과정 졸업	75	26.0	·	289 (100)	
		1 = 대학 교육과정이상 졸업	214	74.0			
	성별	0 = 남자	177	61.2	·	289 (100)	
		1 = 여자	112	38.8			
독립 변인	연령	0 = 만 17세	56	19.4	285 (98.6)	289 (100)	
		1 = 만 18세	228	78.9			
		2 = 만 20세	1	.3			
		무응답	4	1.4			4(1.4)
	소속고등학교 유형	0 = 전문계 고등학교	108	37.4	278(96.2)	289 (100)	
		1 = 일반계 고등학교	162	56.1			
		2 = 특수목적 고등학교	8	2.8			
		무응답	11	3.8			11(3.8)

8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5권 4호)

<표 2> 변인과 측정에 관한 정보(계속)

변인	측정	사례수	%	소계 인원수(%)	계 (%)	
사교육 경험여부	0 = 받은 적이 없다	191	66.1	286(98.0)	289 (100)	
	1 = 받은 적이 있다	95	32.9			
	무응답	3	1.0			3(1.0)
수업이해도	0 = 40 % 미만	132	45.7	288(99.7)	289 (100)	
	1 = 40 % 이상	156	54.0			
	무응답	1	.3			1(.3)
가구소득	0 = 300만 원 미만	96	33.3	251(86.9)	289 (100)	
	1 = 301만 원 이상	155	53.6			
	무응답	38	13.1			38(13.1)
독립 변인	상담을 통한 진학 진로지도 여부	0 = 받은 적이 없다	118	40.8	·	289 (100)
		1 = 받은 적이 있다	171	59.2		
	진학진로지도 관 련 검사(전공적성 검사) 여부	0 = 받은 적이 없다	113	39.1	285	289 (100)
		1 = 받은 적이 있다	172	59.5		
		무응답	4	1.4		
	전문가 혹은 선배 등으로부터 진학 진로지도 여부	0 = 받은 적이 없다	99	34.3	284	289 (100)
		1 = 받은 적이 있다	185	64.0		
		무응답	5	1.7		
	대학 및 학과 안 내형태의 진학지 도 경험유무	0 = 받은 적이 없다	81	28.0	286	289 (100)
		1 = 받은 적이 있다	205	70.9		
		무응답	3	1.1		

이상의 <표 2>가 나타내는바와 같이 만 17세와 20세 사이의 언어장애, 자폐 범주성 장애, 정서 및 행동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시각장애 등의 장애범주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3학년 장애 학생의 61.2%(177명)는 남자 학생이었고, 38.8%(112명)는 여자 학생이었다. 이들 중 74%(214명)는 대학 교육과정이상 졸업을 선택하였고, 26.0%(75명)는 고등학교과정 졸업을 선택하였다. 이들의 37.4%(108명)는

전문계 고등학교에, 56.1%(162명)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나머지 2.8%(8명)는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통합되어 있었다. 66.1%(191명)는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었고, 32.9%(95명)는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었다. 분석 자료가 제시하는 학생의 수업이 해도가 40% 이하인 경우는 45.7%(132명)이었고, 40% 이상인 경우는 54.0%(156명)이었다. 이들 학생들의 가구소득은 300만 원 이하가 33.3%(96명)이었고, 300만 원 이상이 53.6%(155명)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40.8%(118명)은 상담을 통해 진학지도를 받은 적이 없는 학생이었고, 나머지 59.2%(171명)는 진학지도를 받은 적이 있는 학생이었다.

### III. 연구결과 및 분석

#### 1. 장애학생의 진학준비 실태

학생의 진학준비에 관한 실태로 먼저 과목영역별 사교육 상황을 조사하였다. 조사에 응답한 학생의 정보가 담긴 결과가 아래의 <표 3>에 제시되었다.

<표 3> 과목영역별 사교육

구 분		사례수 (%)	M	SD	순위
언어영역	① 전혀 도움이 안된다.	3(9.1)	3.39	1.14	5
	② 도움이 안 되는 편이다	4(12.1)			
	③ 보통이다	7(21.2)			
	④ 도움이 되는 편이다	15(45.5)			
	⑤ 매우 도움이 된다	4(12.1)			
	계	33(100.0)			
수리영역	① 전혀 도움이 안된다.	3(5.2)	3.64	1.07	2
	② 도움이 안 되는 편이다	5(8.6)			
	③ 보통이다	14(24.1)			
	④ 도움이 되는 편이다	24(41.4)			
	⑤ 매우 도움이 된다	12(20.7)			
	계	58(100.0)			

10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5권 4호)

<표 3> 과목영역별 사교육(계속)

구 분		사례수 (%)	M	SD	순위
외국어 (영어) 영역	① 전혀 도움이 안된다.	2(3.2)	3.76	.88	1
	② 도움이 안 되는 편이다	3(4.8)			
	③ 보통이다	12(19.0)			
	④ 도움이 되는 편이다	37(58.7)			
	⑤ 매우 도움이 된다	9(14.3)			
	계	63(100.0)			
사회탐구 영역	① 전혀 도움이 안된다.	1(5.6)	3.61	.98	3
	② 도움이 안 되는 편이다	1(5.6)			
	③ 보통이다	4(22.2)			
	④ 도움이 되는 편이다	10(55.6)			
	⑤ 매우 도움이 된다	2(11.0)			
	계	18(100.0)			
과학탐구 영역	① 전혀 도움이 안된다.	1(5.9)	3.53	1.01	4
	② 도움이 안 되는 편이다	1(5.9)			
	③ 보통이다	5(29.3)			
	④ 도움이 되는 편이다	8(47.1)			
	⑤ 매우 도움이 된다	2(11.8)			
	계	17(100.0)			
논술영역	① 전혀 도움이 안된다.	3(21.4)	3.21	1.37	6
	② 도움이 안 되는 편이다	0(0.0)			
	③ 보통이다	4(28.6)			
	④ 도움이 되는 편이다	5(35.7)			
	⑤ 매우 도움이 된다	2(14.3)			
	계	14(100.0)			

\* 총계 ≠ 289

이상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과목영역별 사교육을 받는 장애학생은 적게는 14명(논술영역) 에서 많게는 63명(외국어영역) 이었다. 학생은 외국어영역(M = 3.76, SD = .88), 수리영역(M = 3.64, SD = 1.07), 사회탐구영역(M = 3.61, SD = .98) 순으로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가장 낮게 조사된 영역은 논술영역(M = 3.21, SD = 1.37) 이었다. 과목영역별 사교육의 전체 평균 범위가 3.21 ~ 3.76 으로, 학생은 사교육이 ‘보통이다’에서 ‘도움이 되는 편이다’로 응답하였다. 나머지 대다수의 학생은 사교육을 받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 대학 진학의존활동

구 분		사례수 (%)	M	SD
대학진학 의존활동	① 학교(수업, 방과후 학교)	127(43.9)	2.15	1.51
	② 자기주도학습	67(23.2)		
	③ 학원	31(10.7)		
	④ 인터넷강의(EBS제외)	18(6.3)		
	⑤ 과외(개인과외, 그룹과외)	13(4.5)		
	⑥ EBS 강의 수강	13(4.5)		
	무응답	20(6.9)		
	계	289(100.0)		

장애학생의 대학 진학의존활동에 관한 실태는 아래의 <표 4>와 같다. 학생의 43.9%(127명)는 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가장 많이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고, 4.5%(13명)는 과외나 EBS 강의수강으로 대학진학을 준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은 학생이 응답한 대학을 진학해야 하는 이유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5>와 같다.

<표 5> 대학 진학 이유

구 분		사례수 (%)	M	SD	순위
당연함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0(3.5)	3.54	.98	7
	② 그렇지 않다	18(6.2)			
	③ 보통이다	83(28.7)			
	④ 그렇다	95(32.9)			
	⑤ 매우 그렇다	37(12.8)			
	무응답	46(15.9)			
	계	289(100.0)			
좋은 취직자리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2(4.2)	3.62	1.04	6
	② 그렇지 않다	17(5.9)			
	③ 보통이다	73(25.3)			
	④ 그렇다	91(31.4)			
	⑤ 매우 그렇다	50(17.3)			
	무응답	46(15.9)			
	계	289(100.0)			

12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5권 4호)

<표 5>

대학 진학 이유(계속)

	구 분	사례수 (%)	M	SD	순위
공부하고 싶은 분야	① 전혀 그렇지 않다	7(2.4)	3.67	1.00	4
	② 그렇지 않다	18(6.2)			
	③ 보통이다	78(27.0)			
	④ 그렇다	86(29.8)			
	⑤ 매우 그렇다	54(18.7)			
	무응답	46(15.9)			
	계	289(100.0)			
원하는 직업에 필요한 자격	① 전혀 그렇지 않다	3(1.0)	3.97	.87	1
	② 그렇지 않다	8(2.8)			
	③ 보통이다	54(18.7)			
	④ 그렇다	106(36.7)			
	⑤ 매우 그렇다	72(24.9)			
	무응답	46(15.9)			
	계	289(100.0)			
대학생활 만끽	① 전혀 그렇지 않다	6(2.1)	3.81	.93	2
	② 그렇지 않다	12(4.2)			
	③ 보통이다	61(21.1)			
	④ 그렇다	108(37.4)			
	⑤ 매우 그렇다	56(19.3)			
	무응답	46(15.9)			
	계	289(100.0)			
친구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28(9.7)	2.97	1.10	9
	② 그렇지 않다	47(16.3)			
	③ 보통이다	93(32.2)			
	④ 그렇다	55(19.0)			
	⑤ 매우 그렇다	20(6.9)			
	무응답	46(15.9)			
	계	289(100.0)			
하고 싶은 일을 찾으러	① 전혀 그렇지 않다	7(2.4)	3.77	.96	3
	② 그렇지 않다	12(4.2)			
	③ 보통이다	66(22.8)			
	④ 그렇다	102(35.3)			
	⑤ 매우 그렇다	56(19.4)			
	무응답	46(15.9)			
	계	289(100.0)			
많은 사람과 교제	① 전혀 그렇지 않다	8(2.8)	3.63	.93	5
	② 그렇지 않다	11(3.8)			
	③ 보통이다	85(29.4)			
	④ 그렇다	99(34.3)			
	⑤ 매우 그렇다	40(13.8)			
	무응답	46(15.9)			
	계	289(100.0)			

<표 5> 대학 진학 이유(계속)

구 분	사례수 (%)	M	SD	순위
가족과 선생님 권유	① 전혀 그렇지 않다	3.01	1.06	8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무응답			
	계			

이상의 <표 5>에 나타난 것 같이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원하는 직업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싶기 때문이라는 반응의 평균이 3.97(SD = .87) 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대학생활을 만끽하고 싶다는 응답으로 평균이 3.81(SD = .93) 이었다.

다음으로 대학 진학결정에 도움을 받는 사람(정보)에 관한 실태이며 그 결과는 아래의 <표 6>과 같다.

<표 6> 대학 진학결정에 도움을 받는 사람(정보)

구 분	사례수 (%)	M	SD	순위
가족	①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3.39	1.08	1
	②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영향을 준다			
	⑤ 많이 영향을 준다			
	무응답			
	계			
친구	①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3.09	1.07	3
	②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영향을 준다			
	⑤ 많이 영향을 준다			
	무응답			
	계			

14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5권 4호)

<표 6> 대학 진학결정에 도움을 받는 사람(정보)(계속)

구분	사례수 (%)	M	SD	순위	
학교 선생님	①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20(6.9)	3.20	1.08	2
	②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34(11.8)			
	③ 보통이다	95(32.9)			
	④ 조금 영향을 준다	66(22.8)			
	⑤ 많이 영향을 준다	28(9.7)			
	무응답	46(15.9)			
	계	289(100.0)			
학원관련자	①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68(23.5)	2.47	1.18	6
	②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44(15.2)			
	③ 보통이다	86(29.8)			
	④ 조금 영향을 준다	28(9.7)			
	⑤ 많이 영향을 준다	13(4.5)			
	무응답	50(17.3)			
	계	289(100.0)			
대학교의 안내서	①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30(10.4)	2.98	1.06	4
	②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35(12.1)			
	③ 보통이다	102(35.3)			
	④ 조금 영향을 준다	63(21.8)			
	⑤ 많이 영향을 준다	13(4.5)			
	무응답	46(15.9)			
	계	289(100.0)			
대학교 주최 오픈 캠퍼스	①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43(14.9)	2.61	1.02	5
	②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53(18.3)			
	③ 보통이다	108(37.4)			
	④ 조금 영향을 준다	29(10.0)			
	⑤ 많이 영향을 준다	8(2.8)			
	무응답	48(16.6)			
	계	289(100.0)			

위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애학생의 대학 진학결정에 도움을 받는 사람(정보)은 가족(평균 3.39, SD = 1.08), 학교선생님(평균 3.20, SD = 1.08), 친구(평균 3.09, SD = 1.07), 대학교의 안내서(평균 2.98, SD = 1.06), 대학교 주최 오픈 캠퍼스(평균 2.61, SD = 1.02), 학원 관련자(평균 2.47, SD = 1.18) 순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진학정보 출처에 관한 실태는 아래의 <표 7>에 나타나 있다.

<표 7> 진학정보 출처

구 분		인원수 (%)
진학정보 출처	① 학교	72(24.9)
	② 가족, 친구, 선배 등	61(21.1)
	③ 대학교 홈페이지	48(16.7)
	④ 진학관련 웹사이트 (진학사)	27(9.3)
	⑤ 학원	15(5.2)
	⑥ 기타-인터넷검색 (네이버지식IN, 다른 홈페이지, 카페, 커뮤니티)	5(1.7)
	⑦ 진학관련 서적	4(1.4)
	⑧ 입시컨설팅 기관 (입시컨설턴트, 입시설명회)	3(1.0)
	⑨ 진학정보 제공기관 (대학교육협의회)	2(0.7)
	⑩ 기타	2(0.7)
	무응답	50(17.3)
	계	289(100.0)

이상의 <표 7>에 의하면, 학생은 학교, 가족, 친구, 선배, 대학교 홈페이지, 진학 관련 웹사이트, 학원 등의 순으로 대학진학에 관한 정보를 얻는다고 응답하였다.

## 2. 장애학생의 진학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분석

### 1) 카이검증을 통한 유의한 차이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포함시킬 변인을 선별하기 위해서 장애학생의 진학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관계)가 있는 요인들을 먼저 파악하였다. 이 분석을 위해 카이검증이 실시되었고, 그 결과는 아래의 <표 8>과 같다.

16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5권 4호)

<표 8> 카이검증: 차이를 보이는 변인

변인	사례수 (%)			전체	유의성 검정
	고등학교 과정 졸업	대학 교육과정 이상 졸업			
성별	남	51(28.8)	126(71.2)	177(100)	$x^2(1) = 1.95,$ $p = .163$
	녀	24(21.4)	88(78.6)	112(100)	
	전체	75(26.0)	214(74.0)	289(100)	
연령	만 17세	17(30.4)	39(69.6)	56(100.0)	$x^2(2) = 3.65,$ $p = .161$
	만 18세	56(24.6)	172(75.4)	228(100.0)	
	만 20세	1(100.0)	0(0.0)	1(100.0)	
	전체	74(26.0)	211(74.0)	285(100.0)	
소속고등 학교유형	전문계 고등학교	37(34.3)	71(65.7)	108(100.0)	$x^2(2) = 10.22^{**},$ $p = .006$
	일반계 고등학교	31(19.1)	131(80.9)	162(100.0)	
	특수목적고등학교	4(50.0)	4(50.0)	8(100.0)	
	전체	72(25.9)	206(74.1)	278(100.0)	
사교육 경험여부	없다	61(31.9)	130(68.1)	191(100.0)	$x^2(1) =$ $11.02^{***},$ $p = .001$
	있다	13(13.7)	82(86.3)	95(100.0)	
	전체	74(25.9)	212(74.1)	286(100.0)	
수업이해도	40% 이하	50(37.9)	82(62.1)	132(100.0)	$x^2(1) =$ $17.73^{***},$ $p = .000$
	40% 이상	25(16.0)	131(84.0)	156(100.0)	
	전체	75(26.0)	213(74.0)	288(100.0)	
가구 소득	300 만 원 이하	21(21.9)	75(78.1)	96(100.0)	$x^2(1) = 2.16,$ $p = .541$
	301 만 원 이상	44(28.4)	74(71.6)	155(100.0)	
	전체	65(25.9)	186(74.1)	251(100.0)	
상담을 통한 진학진로 지도 여부	없다	53(44.9)	65(55.1)	118(100.0)	$x^2(1) =$ $37.32^{***},$ $p = .000$
	있다	22(12.9)	149(87.1)	171(100.0)	
	전체	75(26.0)	214(74.0)	289(100.0)	
진학진로지도 관련 검사 (전공적성 검사) 여부	없다	31(27.4)	82(72.6)	113(100.0)	$x^2(1) = .12,$ $p = .728$
	있다	44(25.6)	128(74.4)	172(100.0)	
	전체	75(26.3)	210(73.7)	285(100.0)	
전문가 혹은 선배 등으로부터 진학진로 지도 여부	없다	36(36.4)	63(63.6)	99(100.0)	$x^2(1) = 7.75^{**},$ $p = .005$
	있다	39(21.1)	146(78.9)	185(100.0)	
	전체	75(26.4)	209(73.6)	284(100.0)	
대학 및 학과 안내형태의 진학진도 경험 유무	없다	32(39.5)	49(60.5)	81(100.0)	$x^2(1) =$ $10.32^{***},$ $p = .001$
	있다	43(21.0)	162(79.0)	205(100.0)	
	전체	75(26.2)	211(73.8)	286(100.0)	

\* $p < .05$ ; \*\* $p < .01$ ; \*\*\* $p < .001$

남녀 장애학생 26%(75명)가 고등학교과정 졸업을 선택했고, 나머지 214명은 대학교육이상을 마치기를 희망했다. 수업이해도가 40%이상인 학생 중 84%(131명)가 대학교육이상을 선택했고, 상담을 통해 진학진로지도를 받은 학생 중 87.1%(149명)가 대학교육이상 졸업을, 12.9%(22명)가 고등학교과정을 졸업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왔다. 전문가 혹은 선배로부터 진학진로지도를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146명)이 그렇지 않은 학생(63명)보다 더 많이 대학 교육과정이상 졸업을 원했다. 대학 및 학과안내형태의 진학지도를 받은 학생(162명)이 그렇지 않은 학생(49명)보다 대학교육이상을 졸업하고자 하는 경향이 더 강했다.

10개의 변인들 중 6개의 변인, 즉 ‘소속고등학교유형( $x^2(2) = 10.22, p = .006$ )’, ‘사교육경험여부( $x^2(1) = 11.02, p = .001$ )’, ‘수업이해도( $x^2(1) = 17.73, p = .000$ )’, ‘상담을 통한 진학진로지도여부( $x^2(1) = .12, p = .728$ )’, ‘전문가 혹은 선배 등으로부터 진학진로지도 여부( $x^2(1) = 7.75, p = .005$ )’, ‘대학 및 학과 안내형태의 진학지도 경험유무( $x^2(1) = 10.32, p = .001$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나머지 변인에서는 유의한 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

2)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장애학생의 진학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여섯 개의 독립 변인들 사이의 상관관계여부가 확인되었다. 독립변인들의 분산확대지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1.360 ~ 2.312 (< 10), 공차한계가(TV: Tolerance Value) .433 ~ .735 (>.10)로 변인들은 로지스틱 분석에 사용되기에 적합하였다(Cohen et al., 2003).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이 실행 후 먼저 모형 계수 전체 테스트와 모형 요약에 대한 결과가 아래의 <표 9>에 제시되었다.

<표 9>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 계수 전체 테스트와 모형 요약

	모형 계수 전체 테스트			모형 요약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확률	-2 Log 우도	Cox 와 Snell의 R-제곱	Negelkerke R-제곱
단계	54.776	6	.000	256.945	.183	.268

이상의 <표 9>가 제시하는 바에 의하면 전체 모형의 적합성은 양호한 것으로

18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5권 4호)

나왔다( $x^2(6) = 54.776, p < .001$ ). 종속변인과 독립변인들 사이의 설명력은 18.3%, 관계성은 26.8%로 조사되었다(-2 Log likelihood = 256.945, Cox and Snell R<sup>2</sup> = .183, Nagelkerke R<sup>2</sup> = .268). Hosmer 와 Lemeshow에 의해 검증된 연구 표본의 모형도 적합하다고 나왔다 ( $x^2(8) = 12.941, p = .114$ ).

그 다음으로 연구 표본의 예측도를 살펴보았고, 그 결과는 아래의 <표 10>과 같다.

<표 10> 예측도

감시됨		예측도		분류정확 %
		종속변인		
		고등학교과정 졸업	대학 교육과정이상 졸업	
종속 변인	고등학교과정 졸업	28	43	39.4
	대학 교육과정 이상 졸업	19	181	90.5
전체 퍼센트				77.1

이상의 <표 10>에 의하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종속변인을 예측했을 때 예측정확도가 77.1% 나왔다. 위와 같은 모든 확인절차를 거친 후, 장애학생의 진학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의 <표 11>과 같다.

<표 11>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장애학생의 진학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종속변인	B (B)	표준오차 (SE B)	Wald (Wald's Statistic)	자유도 (df)	유의확률 (P)	승산률(95% 신뢰구간) Odds Ratio(95% CI)
재학교등 학교유형	.184	.290	.405	1	.524	1.202(.682~2.121)
사교육 경험유무	.998	.393	6.432*	1	.011	.456(1.254~5.864)
수업이해도	.706	.319	4.918*	1	.027	2.027(1.086~3.784)
상담을 통한 진학진로지도 여부	1.426	.324	19.392***	1	.000	4.163(2.207~7.855)

<표 11>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장애학생의 진학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계속)

종속변인	B (B)	표준오차 (SE B)	Wald (Wald's Statistic)	자유도 (df)	유의확률 (P)	승산률(95% 신뢰구간) Odds Ratio(95% CI)
전문가 혹은 선배 등으로부터 진학진로지도 여부	.306	.394	.602	1	.438	1.422(.627~2.937)
대학 및 학과 안내형태의 진학진로 경험 유무	.352	.416	.716	1	.398	2.712(.629~3.216)

\* $p < .05$ ; \*\*\* $p < .001$

위의 <표 11>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장애학생의 진학결정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상담을 통한 진학진로지도 여부[( $Wald_{(df=1)} = 19.392, p < .001$ , 승산률(OR): 4.163)]’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머지 장애학생의 진학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사교육 경험유무( $Wald_{(df=1)} = 6.432, p < .05$ )’ 와 ‘수업이해도[( $Wald_{(df=1)} = 4.918, p < .05$ , 승산률(OR: Odds Ratio): 2.027)]’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 이 받지 않은 학생보다 대학 교육과정 이상을 졸업하고 싶다는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른 독립변인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수업이해도’ 가 높을수록 대학 교육과정 이상을 선택할 가능성이 4.918배(103%) 더 높아졌고, 무엇보다도 상담을 통해 진학진로 지도를 받은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대학 교육과정 이상을 선택할 가능성이 4.163배(316%)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IV. 논의 및 제언

이 연구는 장애학생의 진학준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진학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연구의 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하며 논의와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진학준비에 대한 실태에 관하여 살펴보면 일부 소수의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는 편이었고(14명~63명) 이들은 사교육이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 교육 중심의 대학진학 준비(학교, 자기주도 학습)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의 대학 진학 이유는 원하는 직업을 가지고 싶어서가 가장 많았다. 진학결정에 가족이 가장 많이, 그 다음으로 학교 선생님과 친구, 대학교의 안내서, 대학교 주최 오픈 캠퍼스, 학원관련자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진학준비출처는 학교, 가족, 친구, 선배, 대학교 홈페이지, 진학관련 웹사이트, 학원 순이었다.

둘째 진학결정에 관련이 있는 영향변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교육 경험유무’, ‘수업이해도’, 그리고 ‘상담을 통한 진학진로지도 여부’가 학생들의 진학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이 변인은 김태일(2005)의 사교육 경험유무, Chiang et al. (2012)의 수업이해도, 상담을 통한 진학진로지도 여부(Chiang et al., 2012; Halpern et al., 1995; Test et al., 2009)의 연구들과 일치하였다. 본 연구는 미국국립종단전환 연구(NLTS2: National Longitudinal Transition Study2)의 결과와 비교할 때 성별, 연령, 대학진학 진로지도상담 변인에 대한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 외의 나머지 변인들 즉 성별, 연령, 소속고등학교유형, 가구소득, 진학진로지도 관련검사(전공적성 검사) 여부, 전문가 혹은 선배 등으로부터 진학진로지도 여부, 대학 및 학과 안내형태에서는 유의한 영향력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것은 ‘성별’ 변인의 영향력이 검증된 기존의 연구와(김성식, 2008; 정운우, 2012; Powers et al., 2008) ‘소속고등학교유형’ 변인의 영향력이 확인된 연구(Chiang et al., 2012), 그리고 ‘가구소득’ 변인의 영향이 검증된 선행연구의(김성식, 2008; Chiang et al., 2012)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의 불일치는 연구들 간의 변인의 차이도 있고, 연구방법론이나 통계처리방법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일 듯하다.

학생의 진학준비에 대한 실태에서 파악된 것은 전반적으로 장애학생도 비장애학생과 거의 유사한 진학준비 실태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주목할 만 한 점은 장애학생의 사교육의 실태였는데 사교육이 진학 준비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반면 사교육을 실제로 받는 학생의 수는 지극히 낮았다. 이는 아마도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학생의 이동의 문제, 건강상의 문제, 비용과 관련된 재정적인 문제(김미선, 박중휘, 2013)와 연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학생이 이동하기 불편해서 사교육 기관 이용이 어려운 것이라면 다른 교육기관으로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 줄 교통편의시설을 더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교통서비스는 제한적이어서 많은 이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고 쉽지도 않다. 또한 학생들이 사교육에 따른 비용문제가 부담이어서(최지영, 2009) 학교 교육이외의 추가적인 교육의 기회를 꺼려하는 상황이라면 가구가 짊어져야 하는 비용의 문제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국가적인 방안이 고안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동의 문제와 교육에 있어서의

비용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차원에서 제공되는 질 높은 교육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예를 들어 요즈음 제공되고 있는 방과 후 프로그램은 사교육의 질과 동일하게 양질의 교육형태를 살린 일대일 교수법을 학교차원에서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아 실시한다면 이동의 문제 혹은 교육비용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교육의 과열 현상을 줄이면서 학생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학생의 수업이해도는 진학결정에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변인이었는데, 학생의 수업이해도가 높으면 학생이 높은 학업 수행도를 보일 확률이 크기 때문에 진학결정에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다(Chiang et al., 2012).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진학을 위한 준비가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을 고려할 때(Hitchings, Retish, & Horvath, 2005) 학습지원체제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학생이 학교와 가족을 통해 대학기관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접하는 것을 보면 무엇보다 학교와 가족들에게 진학과 관련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연구는 시사한다. 부모들에게 진학에 관한 설명회나 정보책자 보급은 물론이고 교사와의 만남을 통한 협력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이 부분을 담당할 전문 교사인력의 부족과 양성도 중요한 부분인 듯 보인다(서희선, 권현수, 2009; 우정환, 김영걸, 이창섭, 2008). 장애학생 진학진로지도를 담당할 교사는 먼저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훈련과 진학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정보를 잘 다룰 수 있는 기술을 연습하는 훈련과정을 거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요구된다. 특히 기존연구에서 대학진학 진로지도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 그룹이 상담을 받지 않은 그룹 보다 더 높은 교육단계로 진학결정을 하는 것으로 밝혀진 것과 같이(Halpern et al., 1995; Test et al., 2009), 이 연구에서도 진학결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변인이 '상담을 통한 진학진로지도 여부'였다는 것을 볼 때 교사가 학생들의 진학결정에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이와 더불어 학생의 진학지도의 시점도 저학년부터 시작하여 어느 기간 동안 전략적으로 실시되어야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가족이나 학생이 진학정보를 대학교 홈페이지나 대학교 주최 오픈 캠퍼스를 통해 많이 접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장애학생이 진학하는 데 있어 대학기관의 역할도 중요하다. 그러므로 대학들도 학교 내 홍보팀과 지원체제를 갖추고 학부모나 장애 고등학생을 위한 입시설명회를 통해서 학생에게 학과를 소개하고 대학 내 편의시설을 소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학생의 필요를 조사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수험편의 매뉴얼을 만들어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내기를 권고하는 바이다.

한국교육중단연구 조사자료를 통하여 진학을 앞 둔 고등학교 3학년 장애학생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이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조사자료를 활

## 22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5권 4호)

용하여 이차적 분석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몇 가지 제한점들이 있었다. 첫째 변인들의 변동사항에 관한 추적이 용이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학생의 소속고등학교유형은 고등학교 1학년 자료에서만 추출 가능하였는데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을 거치면서 발생했을 수도 있는 변동사항은 파악할 수 없었으므로 자료 분석에 영향을 주었을 법하다. 둘째, 학생관련 변인이 제한적이었다. 예를 들어 학생의 전환교육에 관한 정보가 조사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분석에 사용하지 못했다.

이러한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앞서 발견된 제한점들을 보강하여 학생관련 변인뿐만이 아니라 전환교육 실태조사와 영향변인을 후속 연구에서 살펴본다면 더 유익한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리라 본다. 더불어, 비장애학생과의 비교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를 한다면 유익한 시사점을 더 제시해 줄 수 있으리라 본다.

##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2013). **특수교육연차보고서**. 2013년 정기국회 보고자료.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 (2013). **교육기본통계**. 2013년 정기국회 보고자료.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김동일, 김혜영 (2006). 장애 대학생 수업 지원에 대한 인식 조사: 대학 교수를 중심으로. **통합교육연구**, 1(2), 117-132.
- 김미선, 박중희 (2013). 시각장애 대학생의 대학 내 교육복지 지원 경험과 인식. **시각장애연구**, 29(2), 1-22.
- 김성식 (2008). 학생 배경에 따른 대학진학 기회의 차이 : 성별, 가정배경, 지역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9(2), 27-47.
- 김영걸 (2009). 특수학습교사들의 보조공학 활용 실태와 요구조사. **시각장애연구**, 25(2), 185-204.
- 김용욱, 김남진, 우이구 (2008). 고등교육기관의 장애학생지원센터 모델연구 II.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9(3), 305-330.
- 김태일 (2005). 고등학교 때 사교육이 대학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분석: 사교육의 '인적자본효과'와 '대학진학효과'에 대한 논의. **교육학연구**, 43(3), 29-56.
- 김형일 (2012). 장애대학생 대학생활 만족도 및 요구조사 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14(3), 165-190.
- 박환보, 양희중, 김기석 (2009). 고등교육 보편화의 두 사례. **한국비교교육학회**, 19(1), 1-23.
- 서희선, 권현수 (2009). 장애이해 교육과 통합교육 경험이 초등학교 학생의 장애인식 및 수용태도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연구**, 16(1), 63-82.
- 우정환, 김영걸, 이창섭 (2008). 초·중등학교 일반교육교사의 장애이해교육 실태, 인식 및 요구에 대한 비교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9(2), 359-386.
- 우정현 (2009). 원격대학의 장애학생 교육실태 및 요구조사: D 사이버대학교를 중심으로. **시각장애연구**, 25(6), 161-183.

- 이경준 (2008). 장애인 고등교육 분야에서의 정책변화와 지원요인탐색연구. *사회과학연구*, 24(3), 103-130.
- 정동영 (2006). 예비교사들의 장애학생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인식 비교. *특수교육학연구*, 41(3), 296-319.
- 정윤우 (2012). 고등학교 특수학급 학생의 대학진학지도에 대한 특수교육교사의 인식과 대학 진학결정 영향 변인분석.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3(1), 213-232.
- 정의석, 이해균, 김정현 (2011). 시각장애학교 고등부학생의 대학진학지원 서비스 실태. *시각장애연구*, 27(3), 113-145.
- 최민숙, 김성애, 박은혜 (2002). 장애학생의 대학교육에 대한 교수의 인식. *특수교육*, 1, 133-157.
- 최지영 (2009).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상담학연구*, 10(4), 2571-2589.
- 한국교육개발원 (2005). *한국교육중단연구*. 2005년 조사·보고자료.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교육개발원 (2008). *한국교육중단연구*. 2008년 조사·보고자료.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교육개발원 (2010). *한국교육중단연구*. 2010년 조사·보고자료.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현 주, 김양분, 류한구, 박현정, 김태은 (2006). *KEDI 종합검사도구개발: 기술보고서 1*.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Chiang, H-M., Cheung, Y. K., Hickson, L., Xiang, R., & Tsai, L. Y. (2012). Predictive factors of participation in postsecondary education for high school leavers with autism. *Journal of Autism Developmental Disorders*, 42(5), 685-696.
- Cohen, J., Cohen, P., West, S. G., & Aiken, L. S. (2003). *Applied multiple regression/correlation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Mahwah: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Halpern, A. S., Yovanoff, P., Doren, B., & Benz, M. R. (1995). Predicting participation in postsecondary education for school leavers with disabilities. *Exceptional Children*, 62(2), 151-164.
- Hitchings, W., Retish, P., & Horvath, M. (2005). Academic preparation of adolescents with disabilities for postsecondary education. *Career Development for Exceptional Individuals*, 28(1), 26-35. doi: <http://dx.doi.org/10.1177/08857288050280010501>.
- Powers, K., Hogansen, J., Geenen, S., Powers, L. E., & Gil-Kashiwabara, E. (2008). Gender matters in transition to adulthood: A survey study of adolescents with disabilities and their families. *Psychology in the Schools*, 45(4), 349-364.
- Roberts, K. D. (2010). Topic areas to consider when planning transition from high school to postsecondary education for students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s. *Focus on Autism and Other Developmental Disabilities*, 25(3), 158-162.
- Test, D. W., Mazzotti, V. L., Mustian, A. L., Fowler, C. H., Kortering, L., & Hohler, P. (2009). Evidence-based secondary transition predictors for improving postschool outcomes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Career Development for Exceptional Individuals*, 32(3), 160-181.

## The Actual Conditions of College Entrance Preparation and Predictors of Decision Making on the Post High School Academic Path of High School Students with Disabilities

**Ji Kyung Lee**

BK21+ Research Professor in the Dept. of Special Education Program  
at Pusan National University\*

**Jae Kook Park**

Professor in the Dept. of Special Education Program  
at Pusan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the actual conditions of college entrance preparation and identify the predictors of decision making on the post high school academic path in high school students with disabilities. Furthermore, the study also aims to provide the students with ways to better make a decision on their post high school academic path. The Korean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data(2005–2010), which was developed by the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was used for the present study. The data is comprised of 289 high school students with disabilities enrolled in regular high schools nationwide. The chi-square test and the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for analyzing the data. The study found that the majority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were involved in school based college preparation. They were motivated to enter higher education institutes for decent future employment opportunities. In addition, their family and school teachers were the significant contributors in their decision to enter college. ‘Private education’, ‘class mastery

---

\* The 1<sup>st</sup> author : Ji Kyung Lee (jikyunglee@gmail.com)

\*\* Corresponding author : Jae Kook Park (pjk006@hanmail.net)

level', and 'career counseling' were significant predictors in the decision of the future college education of high school students with disabilities. Based on these results, the study suggests ways to further support for high school students with disabilities regarding their future educational plan.

**Key Words :** High School Students with Disabilities, Actual Conditions of College Entrance Preparation, Decision Making on the Post High School Academic Path, Predictors

---

논문 접수: 2014. 08. 10 심사 시작: 2014. 08. 13 게재 확정: 2014. 10. 17